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A Comment : A Study of Woman's role in the
Military Evangelism Activity)

김성봉 목사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B. A.)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 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 M.)
-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Th. D.)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역임, 현)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귀한 논문을 내신 데 대하여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 목사님의 논문은 군선교 현장에서 최근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다
루었다는 데에서 시의적절한 논의라 여겨집니다. 먼저 논문의 내용을 간
결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몇 가지 논찬을 위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논지는 먼저 서론에서 본 논의의 당위성을 말하고, 이어 본론에서 본
논지를 풀어가는데, 처음 두 장에서는 현황에 대하여 말하고 나중 두 장

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합니다. 먼저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 사역과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열거한 뒤에 군과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논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군의 역사, 한국군에서의 여군의 역할, 군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 미래군과 여성에 대하여 논합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군선교와 여성 사역 그리고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합니다. 군선교와 여성 사역에 관하여는 군선교 현장에서의 여성 사역의 실제, 현역 군목들의 여성 사역에 대한 인식, 현역 육군 기독 장병들의 여성 사역에 대한 인식, 외국군 사례에서 본 여성 사역 그리고 여성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소에 대하여 논합니다.

다음으로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는 목회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주로 군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며 남성적인 공동체인 군에서 어머니로서의 여성 사역자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효과적인 여성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제언으로 논문의 끝을 맺습니다.

본자가 군선교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현재 당면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논한 것인 만큼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논문입니다만, 그래도 논의의 발전적인 전개를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한 문제가 12개 교단 간에 선결되지 않으면 여성군종 목사건은 아직 공론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입니다. 논자도 이 점에 대하여 국방부 군종과 충원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군종장교 임관이 가능한 12개 교단의 여성 성직자에 대한 입장과 신학이 다르기 때문

에 이를 허용할 경우 기독교 내부에서도 형평성의 시비가 일 것이고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충돌되는 점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 문제에 대하여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관의 문제요 성경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 3에서 다루듯이 단순히 통계 수치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군선교 현장에서의 여성 사역의 실재를 언급하면서 몇 %라고 말하거나, 현역 군목들의 여성 사역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라거나, 현역 육군 기독 장병들의 여성 사역에 대한 의식이 개방적이라는 식의 논의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별 도움이 못 되는 말이 됩니다.

2. 둘째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외국군 사례에서 본 여성 사역의 경우 천주교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독교의 경우는 여성 목사가 군목으로 임관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천주교의 경우는 정식 사제가 아닌 신분인데……이들의 정식 명칭은 천주교 협력사목자이며 부대 내 천주교회의 협력사목자이자 군종장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영성체, 견신례 등을 행할 수 없고,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으며, 교리교육과 간판미사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개신교회가 너무 빨리 건너가 버린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를 그들은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개신교 몇몇 교단들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잖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훈련

을 거친 여성 요원들이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같은 상담자로
서 남자 군선교 담당자들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제시
한 논자의 주장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